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on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in Korean Libraries

송 현 경 (Hyunkyung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
| 3. 연구방법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전후의 연구 흐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 개정이 연구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관련 논문 265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는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스',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 연구 주제의 뚜렷한 변화 및 확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향과 정책 변화 이후에도 연구 주제가 지속되는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을 반영한 연구의 확장 및 디지털 및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in Korean libra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anges in research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2021 revision of the Library Ac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legislative revision on research trends, the 2021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was used as a reference point. To this end, a total of 265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from 2000 to 2025 were analyzed using keyword frequency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ime-series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research on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in libraries can be categorized into "information divide and information access environment," "library types and user group-based services,"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pecific disadvantaged groups,"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reading-vulnerable populations." In addition, no significant changes or expansion in research topics were observed following the 2021 revision of the Library A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tendency for research to remain focused on specific groups and for research themes to persist despite policy changes.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o expand its scope to include a wider range of disadvantaged groups and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키워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도서관법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Libraries,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Library Act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hsong01@mju.ac.kr / ISNI 0000 0005 0806 5623)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149-174,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149>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이러한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는 업무·학업 성과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의 기회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서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해 온 사회적 기관이다. 특히 도서관은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도서관 이용자는 출신, 연령, 배경 또는 견해에 의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ALA, 2006). 한국도서관협회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윤희윤(2022a)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 중 하나를 '만인공개'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이용자의 차별 없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 및 정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도서관법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

스 제공을 도서관의 책무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규정이 총칙으로 이동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2022년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확대되었다(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이처럼 정책적으로 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현장 도서관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학계도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도서관 연구는 일반적으로 현장의 실천적 현상을 분석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어떠한 도서관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어떤 취약계층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행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관련한 개별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동향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서, 김혜진, 2020; 고정현 외, 2021; 노영희, 장로사, 2019). 특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변화가 학계 연구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 연구의 흐름은 정책적 변화와 함께 하게 되는데, 연구는 정책 자체 혹은 정책의 영향을 받은 현장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노영희, 장로사, 2019)에서는 도

서관의 정책적 변화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내용이 강화되면서 연구자들 역시 관련 변화에 주목하여 연구 의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의제의 변화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기별 분석을 통해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의 확장이 관련 연구 흐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법이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학술적 의제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 연구질문 1.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주요 주제와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정보 격차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념은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보

격차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 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20672호). 도서관 분야에서도 정보 격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정보접근)과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 가공, 처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정보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이와 유사한 개념인 디지털 격차는 일반적으로 ICT와 인터넷 활용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 차이는 사회적 기회와 정치 참여 등 사회적 참여의 격차로도 확장될 수 있어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access to digital media)이란 이용자가 기술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에 대한 동기와 태도, 물리적 접근, 디지털 기술 역량 습득 등을 포함하며 이 과정의 각 단계마다 격차가 나타난다(Van Dijk, 201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는 1차, 2차, 3차로 나눠 설명되는데 1차는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 2차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격차, 3차는 학습 및 생산성과 같은 활용 결과의 격차를 의미한다(Wei et al., 2011).

학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 빈곤(Information Poverty)' 개념도 제시되고 있

다. 정보 빈곤이란,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의미하며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층의 박탈감과 결과를 보여준다(AI-Zaman, 2023). 최근엔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형평성(digital equity)이 논의되고 있다(ALA, 2023). 이 외에도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념과 관련하여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등의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정현 외, 2021).

이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2009년 폐지)에 따르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규정돼 있다(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6795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관련 정책과 개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거쳐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반영되었다(고정현 외, 2021).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 정보 빈곤 등의 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도서관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도서관 분야에서 논의되는 여러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관과 관련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연구 등 도서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2.2 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은 공공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으로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사서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된다(Gorman, 2015). UNESCO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연령, 배경,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지식 및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정보 거점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적 포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능동적 기관으로 명시되었으며(IFLA/UNESCO, 2022),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형평성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제시되었다(ALA, 2023).

국내 도서관 분야에서도 정보 격차에 대한 관심은 정책과 현장 서비스 측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는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료, 프로그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현행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고령층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통과한 이후 2022년 12월 동법 시행령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되었다(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이와 함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핵심과제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시하고 추진과제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광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 또는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치구 대표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취약계층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료 구입, 정보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서울도서관, 발행년불명).

아울러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지식정보 취

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서비스와 독서보조기기 제공,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언어 자료 제공, 농어촌 지역을 위한 이동 도서관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도서관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정보 격차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도서관과 관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로 한정할 경우 제시될 선행연구에 한계가 있어 유사한 개념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격차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국내 도서관법에 명시된 용어로,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 등의 용어로 관련 개념을 표현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우선, 해외 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Scheerder et al.(2017)은 Web of Science 등 DB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인터넷 활용 능력, 인터넷 이용, 성과 관련 검색어를 기반으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126편의 디지털

격차 관련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디지털 격차의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인터넷 이용이 실제 사회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3차 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Lythreath et al.(2022)은 'digital divide', 'digital inequality', 'digital equity', 'digital gap'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Business Source Complete DB 등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50편을 수집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원, 기술 유형, 디지털 교육, 권리, 인프라, 대규모 사건 등 9개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리즘 인식(algorithmic awareness)과 데이터 불평등(data inequalities)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가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Al-Zaman(2023)은 '정보 빈곤(information poverty)'과 '데이터 빈곤(data poverty)'을 주요 검색어로 설정하여 Web of Science 등 DB에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48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문해력, 디지털 격차, 정보 탐색, 정보 빈곤 지역, 청년층이 주요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보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연구자와 기관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는 불균형 현상이 드러났다. 연구는 정보 빈곤 해

소를 위해 정보 문해력 향상과 더불어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서관 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을 보면, 정보 격차 및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등과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이 수행되었다(백송이 외, 2020; 서형준, 명승환, 2016; 이성신 외, 2019). 고정현 외(2021)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 격차', '디지털격차', '정보 불평등', '정보 빈곤', '정보 소외', '정보 취약' 등을 검색어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지를 대상으로 수집한 디지털 격차 관련 논문 488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연구는 2019년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과 복합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픽 모델링 결과 최근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서와 김혜진(2020)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각 학술지의 창간 연도부터 2019년까지 '정보 격차',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 '정보 취약', '정보 소외', '정보 제약', '정보 불균형' 등의 검색어로 수집한 논문 195편을 대상으로 계량서지학 및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79.5%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주제 및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 외 정보 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이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노영희, 장로사, 2019).

선행연구를 보면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

차 연구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또는 도서관 서비스 맥락에서 정보 격차를 다룬 연구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내용이 강화되는 정책적 변화 이후 관련 연구 흐름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기준으로 시기별 연구 흐름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가 학술 연구 주제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탐색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6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KCI 웹사이트(www.kci.go.kr)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발표 연도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로써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 시기를 모두 포함하였다.

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과 함께 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법적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를 반영하여 검색어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의 경우, 유사 개념 및 확장된 표현을 포함하여 검색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키워드는 선행연구(강인서, 김혜진, 2020; 고정현 외, 2021)를 참고하고 일부 키워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총 검색어를 <표 1>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표 1>의 검색어와 관련 검색어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 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도서관'을 기본 검색어로 설정하고 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를 결합하여 검색식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AND(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OR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의 형태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어를 활용하여 총 406편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둘째, 검색 결과 도출된 논문 가운데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예컨대, KCI 등재 학술지에 실리지 않은 논문, 국문 혹은 영문 저자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39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367편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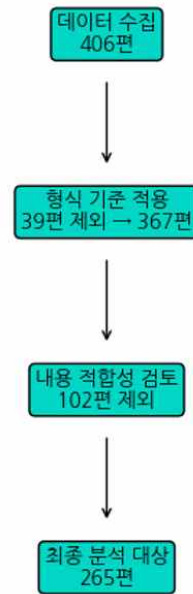
셋째, 형식적 기준을 충족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제목과 저자 키워드, 초록을 기준으로 주제 적합

〈표 1〉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검색어(주. 강인서, 김혜진(2020)을 토대로 보완)

검색어	관련 검색어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배제, 정보 격차,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 정보 소외, 정보 제약, 정보 불균형, 정보 취약, 정보 복지,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소외 계층,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저시력,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난독, 특수학교, 통합교육, 점자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저소득층, 빈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어촌 주민	농어촌, 농촌, 어촌, 산촌, 시골, 군 단위, 벽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자 탈북, 북한이탈, 새터민
고령층	고령자, 고령, 고령화, 노인, 노령, 노년층, 시니어, 노안, 나이듦, 독거노인, 노인복지, 대활자본, 큰글자책
국군장병	병영, 군인, 군대, 국군, 병사
제소자	소년원, 교도소, 교정시설, 교정교육, 비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쉼터 청소년, 역기능 가정, 가출청소년,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한부모, 한부모 가정, 이혼, 이혼가정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 난민, 외국인, 유학생, 비정규직, 홈리스, 노숙인, 입산부, 임신부, 임신

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보 격차 현상을 다루며 도서관과 관련이 없는 연구, 특정 기술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다루지 않은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행태 및 정보 이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 지역 및 자원 관련 도서관 격차에 관한 연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 유관기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등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102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65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절차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대상 논문 정제 과정

다음으로 수집된 논문의 영문 저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분석에 앞서 키워드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이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동일한 개념 및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으로 인해 노드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석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의 경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였으며 2개 이상의 단어로 된 복합 키워드의 경우 의미 단위에 따라 2개 이상의 키워드로 분리하여 정제하였다(예: information divide →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or → information poverty, Library services for alienated children → information service, disadvantaged children). 둘째, 영문의 대소문자 표기 차이와 동일 개념 및 집단의 단수형 및 복수형 등 표기 차이를 통일하였다(예: library policies → library policy, Public Library → public library). 셋째, 일부 오타자와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다(예: information devide → information divide). 넷째, 대부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키워드는 분석 결과의 의미 해석을 저해할 수 있어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과 무관한 용어들을 제외하여 불용어로 처리하였다(예: library, program).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해 연도별 논문 수를 파악하고 학술지별 분포와 전공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제된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위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 간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들이 형성하는 주요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VOSviewer (ver.1.6.20)을 활용하였다. VOSviewer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맵을 시각화하여 키워드 구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다(van Eck & Waltman, 2023). 다양한 국내외 동향 분석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데 VOSviewer를 활용하고 있다(송현경, 2025; 임수정, 2025; Gandasari et al., 2024).

넷째,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하나의 정책적 기준으로 삼아 시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정 이후(2022~2025)'인 4년과 동일한 시기인 '개정 이전(2018~2021)'을 설정하고 각 시기의 상위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 관심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연도별 논문 수와 학술지 분포, 전공별 분포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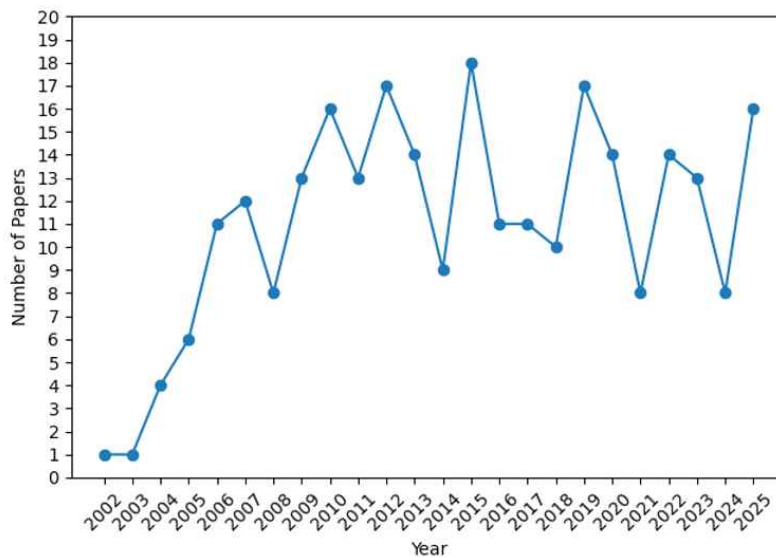
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논문 수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4편 수준으로 연구가 적게 수행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전후에는 연간 13~17편 수준으로 연구가 확대되며 본격적인 증가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15년에는 18편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대 전반에 걸쳐 비교적 높은 연구 생산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의 경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옛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2009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정책과제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강화'를 선정하였다(노영희, 장로사, 2019).

2020년대 이후에도 연간 8~16편 수준에서 변동을 보이며 일정 수준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이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정책을 보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전략방향 중 하나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포함되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19; 2024). 이에 학계의 연구 경향이 도서관 정책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특수교육



<그림 2>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연도별 논문 수

등 18개 주제 분야에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문헌정보학에서 224편이 발표되었으며 교육학, 특수교육에서 각각 8편씩, 건축공학, 학제간연구에서 각각 4편씩 발표되었다. 또한 디자인에서 3편, 사회과학일반, 기타예술체육에서 각각 2편씩 발표되었다. 이외 법학, 신문방송학, 정책학 등 10개 분야에서는 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타 학문 분야에서도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지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총 34개 학술지에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게재 편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80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이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62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52편, '정보관리학회지'에 24편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에 5편,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4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3편, '시각장애연구'에 3편, '특수교육'에 3편이 게재되었다. 이 외에도 4개 학술지에 각 2편씩, 21개 학술지에 각 1편씩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에 가장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학술지 중에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외에도 교육, 장애 등 다양한 학술지에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를 수록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확장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연구 주제가 도서관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 결과는 향후 관련 논의가 보다 다양한 전공 분야 및 관련 학술지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게재 주제 분야별 논문 수

주제 분야	논문 수	주제 분야	논문 수	주제 분야	논문 수
문헌정보학	224	건축공학	4	사회과학일반	2
교육학	8	학제간연구	4	기타예술체육	2
특수교육	8	디자인	3	기타	10

〈표 3〉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게재 학술지별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8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2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2	시각장애연구	3
정보관리학회지	24	특수교육	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5	기타	29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주제별 해석

4.2.1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 대상 논문 265편에 대하여 저자 키워드들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였다. 원본 데이터에서는 총 1334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동의어 통합 및 표기 통일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쳐 469개의 키워드를 확보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정제된 키워드 중 출현 빈도가 7회 이상으로 나타난 상위 30개 키워드를 제시하였다(〈표 4〉 참조). 상위 1~5위 키워드들을 보면, people with disabilities(86), public library(72), older adults(38), disability service(36), library service(34)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 맥

락의 연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의 키워드들을 보면, digital divide(33), information poverty(29), visually impaired(29), information service(21), alternative materials(17), the disadvantaged(17)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 격차와 정보 빈곤 등 지식정보 접근성 문제와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 전반은 물론,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 정보서비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키워드들은 school library(16), information behavior(15), academic library(14), bibliotherapy(13) 순이었다. 이는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환경에서의 정보행태 연구와 함께 독서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키워드들은 library policy(12), information

〈표 4〉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상위 30개 키워드

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1	people with disabilities(86)	16	library policy(12)
2	public library(72)	17	information accessibility(11)
3	older adults(38)	18	information needs(11)
4	disability service(36)	19	reading program(11)
5	library service(34)	20	military library(11)
6	digital divide(33)	21	students with disabilities(11)
7	information poverty(29)	22	library space(10)
8	visually impaired(29)	23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9)
9	information service(21)	24	print disabilities(8)
10	alternative materials(17)	25	library evaluation(8)
11	the disadvantaged(17)	26	universal design(8)
12	school library(16)	27	disadvantaged children(8)
13	information behavior(15)	28	barrier free(7)
14	academic library(14)	29	library management(7)
15	bibliotherapy(13)	30	senior service(7)

accessibility(11), information needs(11), reading program(11), military library(11), students with disabilities(11)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정책과 정보 접근성, 이용자 정보 요구 분석,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연구와 함께 병영 도서관, 장애인 학생 등 특정 도서관 환경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library space(10),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9), print disabilities(8), library evaluation(8), universal design(8), disadvantaged children(8)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소자, 독서장애인,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함께 도서관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30개의 마지막 키워드들은 barrier free(7), library management(7), senior service(7)로 나타났다. 배리어 프리 등 도서관 공간 및 고령층 대상 서비스와 함께 도서관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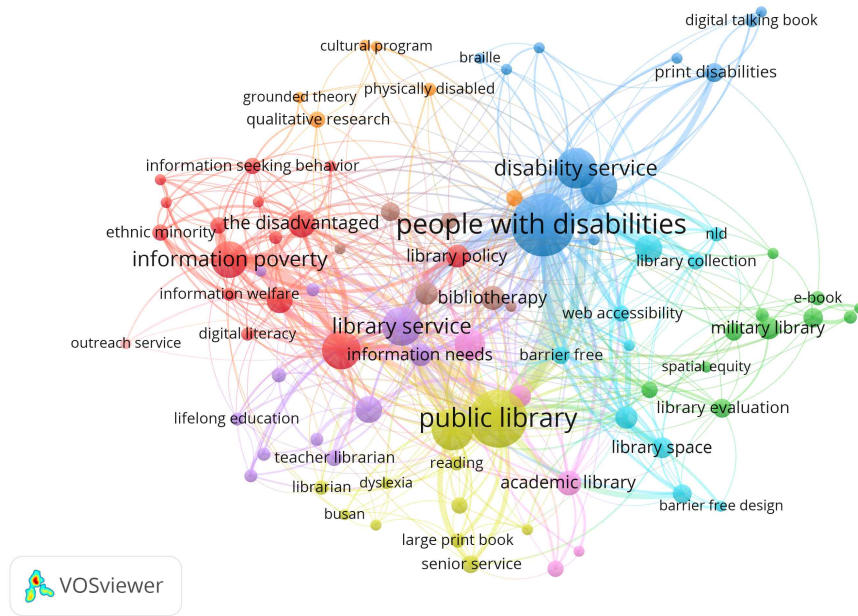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OSviewer를 통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의 최소 출현 기준을 3회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종 87개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핵심 세부 연구 주제 및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시각화한 네트워크에서는 총 10개의 군

집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0개의 군집을 관련성을 기반으로 묶어 상위 군집 4개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3>에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저자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를, <표 5>에서 10개 군집별 주요 키워드 및 상위 군집을 제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중심에는 people with disabilities가 가장 큰 노드로 나타나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구가 장애인 관련 분석이며 다른 연구들과도 관련성이 높은 연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상위 군집들을 보면 정보 격차 일반 및 정보 환경에 집중한 군집(상위 군집 1)과 도서관 유형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집중한 군집(상위 군집 2), 장애인, 고령층 등 개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집중한 군집(상위 군집 3, 상위 군집 4)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위 군집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의 경우, 세부 군집 1과 6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군집 1 '정보 격차 및 정보 추구 행태'의 경우,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inequality, library policy 등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 및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관련 도서관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등을 통해 정보 추구 행태와 관련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information welfare, cultural welfare, social welfare, information policy 등 복지적·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확인되었다. 또한 the disadvantaged, ethnic minority, low income



〈그림 3〉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표 5〉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군집별 주요 키워드

상위 군집	세부 군집	주요 키워드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	1: 정보 격차 및 정보 추구 행태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verty, the disadvantaged, information behavior, library policy
	6: 정보 접근 환경	alternative materials, information accessibility, library space,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스	2: 특수 도서관(병영, 교정시설) 및 도서관 경영	military library,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guideline
	9: 대학도서관 및 특정 학생(장애, 외국인)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libr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students
	10: 아웃리치 서비스	outreach service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3: 장애인 서비스 및 대체자료 접근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service, visually impaired, print disabilities, digital talking book
	5: 교육 및 특정 취약계층(다문화사회, 발달 및 지적장애) 연구	library service, school library, information needs, teacher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cultural society
	7: 특정 장애 유형(청각, 지체) 및 질적 연구	hearing impaired, qualitative research, physically disabled, cultural program, grounded theory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4: 공공도서관 기반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public library, older adults, senior service, post-aged society, large print book
	8: 독서치료 및 취약계층 어린이	bibliotherapy, reading program, disadvantaged children, case study, depression

group, social minorities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일반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 저소득층 등 보다 세부적인 유형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digital literacy 키워드의 등장은 정보 격차 논의가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군집 6 '정보 접근 환경'의 경우, alternative materials, information accessibility 등 대체자료 및 정보 접근성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났다. 특히 library space,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library collection 등 물리적 환경 및 자료와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web accessibility, library website 등 웹 접근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 전반에서의 정보 접근성뿐 아니라 도서관 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상위 군집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스'는 세부 군집 2, 9, 10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군집 2는 '특수 도서관(병영, 교정 시설) 및 도서관 경영'으로 확인되었다. military library,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incarcerated individuals, special library 등의 키워드를 보면,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 특수 도서관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수 도서관과 관련하여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guideline 등 도서관 경영 및 평가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군집 9의 경우, 대학도서관 및 장애 학생, 외국인 학생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드러났

다. 이는 '대학도서관 및 특정 학생(장애, 외국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이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키워드로는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libr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students 등이 나타났다. 아울러 세부 군집 10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outreach service가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해당 상위 군집은 특정 도서관 유형(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대학도서관)과 이용자 집단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연구들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위 군집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는 세부 군집 3, 5, 7로 구성되었다. 세부 군집 3 '장애인 서비스 및 대체자료 접근'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노드인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중심으로 visually impaired, print disabilities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장애인 전반을 중심으로 둔 연구와 함께 시각장애라는 구체적인 장애 유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disability service, digital talking book, braille, daisy, reading environment 등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 및 대체자료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 관련 서비스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pyright law, library law 등의 키워드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공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demand analysis 등의 키워드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군집 5는 '교육 및 특정 취약계층(다문화사회, 발달 및 지적장애) 연구'로 나타났다.

세부 군집 5에서는 교육 및 서비스 관련 주요 키워드로 library service,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lifelong education 등이 나타났다. 또한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worker 등 발달 및 지적장애와 다문화사회 관련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및 정보 리터러시 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논의가 주로 발달 및 지적장애 등 특정 장애인 유형과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군집 7 '특정 장애 유형(청각, 지체) 및 질적 연구'의 경우, hearing impaired, physically disabled 등 특정 장애 유형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등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각 및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한 연구 흐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의 경우 세부 군집 4, 8로 구성되었다. 세부 군집 4는 '공공도서관 기반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키워드 public library를 중심으로 older adults, senior service, post-aged society, large print book 등 고령층 이용자 및 관련 서비스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dyslexia, low vision 등 독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세부 군집 8 '독서치료 및 취약계층 어린이'의 경우, bibliotherapy, read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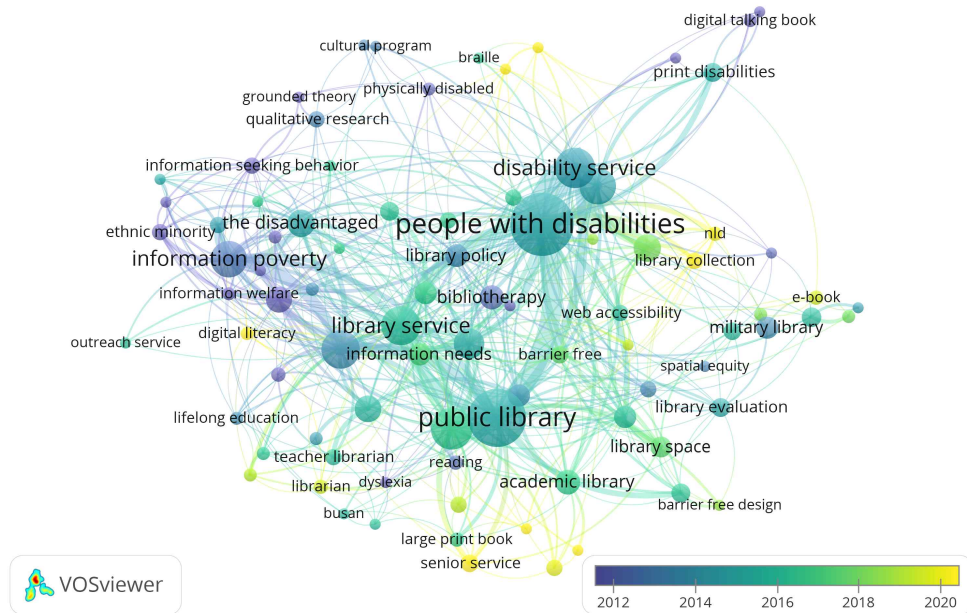
disadvantaged children, depression 등 독서치료 및 취약계층 어린이 관련 키워드가 함께 나타났다. 또한 case study, research trends 등 관련 사례 연구와 동향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3 시계열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연구 동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VOSviewer의 Overlay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그림 4>를 통해 시계열 분석을 제시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12년 전후 시기에는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welfar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qualitative research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이뤄지는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행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014년 전후 시기부터 2016년 전후 시기에는 people with disabilities, public library, disability service, library service, military library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등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함께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특정 도서관 유형에 초점을 맞춘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brary policy, library evaluation, bibliotherapy, print disabilities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독서장애인 및 독서치료 등 독서를 연계한 연구와 함께 도서관 정책 및 평가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키워드 시계열 네트워크

2018년 전후 시기부터 2020년 전후 시기에는 library collection, library space, barrier free, senior service 등의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도서관 장서 및 공간 환경 등 정보 접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web accessibility, digital literacy 등 키워드가 드러나 기술 환경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전후 연구 경향 비교

4.3.1 연도별 논문 수 변화

도서관법은 2021년 12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2022년 12월부터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당

시 도서관법의 여러 내용이 바뀌었는데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규정이 총칙으로 옮겨지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어 2022년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고령층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관법 개정 이전 시기(2018~2021)와 이후 시기(2022~2025)의 연도별 논문 수를 비교하여 연구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교 시기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이후 시기(2022~2025, 4년)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개정 이전 시기를 2018~2021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법 개정 이후 특정 주제의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가 증가하거나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논문 수를 보면, 도서관법 개정 이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논문 수는 2018년 10편, 2019년 17편, 2020년 14편, 2021년 8편으로 연평균 12.25편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논문 수는 2022년 14편, 2023년 13편, 2024년 8편, 2025년 16편으로 연평균 12.75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도서관법 개정 이후 연구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경향은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법 개정 이후 연구 규모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기존 연구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4.3.2 주요 키워드 등장 변화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 시기의 주요 키워드 등장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변화 이후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연구 주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인 2018

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난 키워드는 총 143개이며, 이 중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39개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타난 키워드는 총 160개이며, 이 중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38개로 나타났다. 개정 이후 키워드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2회 이상 출현한 주요 키워드 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키워드에 연구 주제가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나타나면서 키워드가 분산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우선,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개정 이후 시기에서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키워드로는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 disability service, disadvantaged children, alternative materials, digital literacy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논의들과 함께 장애인 서비스,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가 강화되고

〈표 6〉 도서관법 개정 이전(2018~2021)과 이후(2022~2025) 출현 키워드 비교

	주요 키워드(출현 빈도)
개정 이전(2018~2021) 고빈도 키워드	people with disabilities(14), public library(12), older adults(10), information poverty(9), digital divide(7), library service(7), information needs(5), library space(5), disability service(4), information inequality(4), visually impaired(4), school library(4), military library(4)
개정 이후(2022~2025) 고빈도 키워드	public library(18), people with disabilities(13), older adults(10), digital divide(8), library service(8), disability service(7), academic library(5), alternative materials(5), information service(5), library collection(5), the disadvantaged(5), senior service(4), reading program(4), visually impaired(4)
개정 이후 대표적 신규 키워드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 international students, low vision, service quality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개정 이전에 등장하였으나 이후 시기에 서 나타나지 않거나 감소한 키워드도 확인된다.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behavior, user behavior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키워드는 주로 정보 격차 및 이용자 행태 중심의 논의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개정 이후 새롭게 출현한 신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는 총 94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세부 연구 주제와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어느 한 연구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신규 키워드를 보면, international students, low vision, service quality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학생과 저시력자 등 연구 대상의 확대와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연구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및 생성형 AI 시대를 반영하는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여 디지털 및 AI와 관련된 정보 격차와 디지털 포용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관련한 책무를 강조한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고령층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키워드인 people with disabilities는 가장 많은 횟수(86)로 출현했으며 네트워크의 가장 가운데에서 여러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 전반 및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하나의 세부 군집(세부 군집 3)이 형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3개의 세부 군집(세부 군집 5, 7, 9)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장애 유형 중에서는 시각장애에 관한 연구가 대체자료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전반 및 시각장애와 관련한 세부 군집(세부 군집 3) 및 시각장애와 관련된 키워드(visually impaired, digital talking book 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도서관 및 독서 지원이 여러 장애 유형 중 상대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 외에도 여러 장애 유형 중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관련 키워드들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관련한 학계 및 도서관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로 수행된 연구 대상은 고령층으

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고령층 대상 서비스는 하나의 세부 군집(세부 군집 4)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s 등의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low income group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키워드는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았다. 농어촌 주민과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의 도서관 격차를 비교하는 연구(오선경, 2022; 윤희윤, 2022b; 장덕현, 구본진, 2022; 차미경, 송경진, 2010)로 나타났으며 관련 키워드(library divide, library gap 등)의 출현 빈도가 낮게 나타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농어촌 주민에 관한 연구, 농어촌 주민의 정보 추구 행태에 관한 연구 등 농어촌 주민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조용완, 2006a; 2006b)가 수행되었으며 관련 키워드(North Korean refugee) 등이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에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도서관법이 2021년 전부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도서관법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수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자체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및 서비스의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 및 효과 측정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연구가 보다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변화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 등 보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관련한 논의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논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전후 시기부터 2020년 전후 시기 사이에 기술 환경을 반영하는 키워드(web accessibility, digital literacy)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22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 나타난 신규 키워드 중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은 각 1회씩으로 나타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못하였으며 생성형 AI와 관련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윤정임, 최상희, 2024)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AI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고 개개인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은 공공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관으로 관련한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 실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학계의 관심도 기술 발전뿐 아니라 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학계의 주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범위가 확대되고 위치가 총칙으로 옮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

나 본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논문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논의가 보다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률 등 정책의 변화는 주요 행위자들을 변화시킨다는 논의(Pierson, 1993; Mettler & Soss, 2004)와 연결되며 이와 같은 논의는 학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2021년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2025년까지 약 4년의 기간이 지나 학계의 연구 주제가 변화하기엔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며(Mahoney, 2000), 이는 학계의 연구 주제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장기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양적 확대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노영희, 장로사, 2019)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넷째,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에 대한 제언과 함께 연구 측면의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을 보면, 보다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특정 도서관 유형 관련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 제도의 설계를 넘어 성과 및 효과 측정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차원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 및 최근 기술 변화를 담아내는 연구, 성과 및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도서관 분야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AI 기술이 보다 확산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AI 리터러시가 낮은 계층이 새로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법상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스',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등 4개의 상위 군집과 10개의 세부 군집이 나타났다. 둘째, 시계열 분석 결과, 2012년 전후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행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특정 대상 및 도서관 유형으로 연구가 확장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정보 접근 환경으로 보다 연구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기술 변화와 관련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셋째,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AI 등 최근 기술 발전 및 격차와 관련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이 연구

주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데 대해 경로의존성(Mahoney, 2000)과 관련하여 풀이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위논문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도서관

을 중심으로 한 정보 및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논문의 동향을 함께 분석 및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키워드 선정 및 정제 등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간 교차 검증 등의 방법으로 분석 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서, 김혜진 (2020). 문헌정보학 분야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333-352.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2.333>
- 고정현, 강우진, 이종욱 (2021).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79-203.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179>
- 국가도서관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노영희, 장로사 (2019).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63-82. <https://doi.org/10.4275/KSLIS.2019.53.3.063>
-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 백송이, 박기웅, 고사론, 계보경 (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의 국제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제연구*, 33(4), 277-306. <https://doi.org/10.24299/kier.2020.33.4.277>
- 서울도서관 (발행년불명).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개선. 출처: <https://lib.seoul.go.kr/rwww/html/ko/vulnerableSpt.jsp>
- 서형준, 명승환 (2016).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4), 151-187. <https://doi.org/10.22896/karis.2016.19.4.006>
- 송현경 (2025).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291-3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291>
- 오선경 (2022).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현황 및 격차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15-239.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215>

- 윤정임, 최상희 (2024). ChatGPT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의 한국어 학습지원 도서 추천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3), 145-16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145>
- 윤희운 (2022a). *공공도서관정론 (개정증보판)*. 대구: 태일사.
- 윤희운 (2022b).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5-2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05>
- 이성신, 강보라, 이세나 (2019). 정보격차 연구 동향 분석: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와의 비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39-16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139>
- 임수정 (2025). 계량서지분석을 활용한 국방연구기관 연구 동향 분석: 2020년~2024년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7), 506-512. <https://doi.org/10.5762/KAIS.2025.26.7.506>
- 장덕현, 구분진 (2022).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377-397.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377>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6795호.
- 조용완 (2006a).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25-356.
- 조용완 (2006b).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21-149.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20672호*.
- 차미경, 송경진 (2010).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49-1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1.149>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정보 격차*.
출처: <https://www.kla.kr/dictionary?menuIds=5,27>
- 한국도서관협회 (201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
출처: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 Al-Zaman, M. (2023). A review of literature on information poverty. *GeoJournal*, 88(5), 4907-4920. <https://doi.org/10.1007/s10708-023-10901-x>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06, June 30).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23). Digital equity and America's librari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advocacy/content/telecom/Digital_Equity_012623.pdf
- Gandasari, D., Tjahjana, D., Dwidienawati, D., & Sugiarto, M. (2024). Bibliometric and visualized analysis of social network analysis research on scopus databases and VOSviewer. *Cogent Business & Management*, 11(1), 1-17. <https://doi.org/10.1080/23311975.2024.2376899>

- Gorman, M. (2015). *Our Enduring Values Revisited: Librarianship in an Ever-changing Worl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 UNESCO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library-manifesto/>
- Lythreatis, S., Singh, S. K., & El-Kassar, A.-N. (2022). The digital divide: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5, 121359. <https://doi.org/10.1016/j.techfore.2021.121359>
- Mahoney, J. (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507-548. <https://doi.org/10.1023/A:1007113830879>
- Mettler, S. & Soss, J. (2004). The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for democratic citizenship: bridging policy studies and mass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2(1), 55-73. <https://doi.org/10.1017/S1537592704000623>
- Pierson, P. (1993).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45(4), 595-628. <https://doi.org/10.2307/2950710>
- Scheerder, A., van Deursen, A., & van Dijk, J. (2017). Dete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 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8), 1607-1624. <https://doi.org/10.1016/j.tele.2017.07.007>
- Van Dijk, J. A. G. M. (2017). Digital divide: impact of acces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Available: <https://doi.org/10.1002/9781118783764.wbieme0043>
- van Eck, N. J., & Waltman, L. (2023). *VOSviewer manual (version 1.6.20)*. Leiden University,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vailable: https://www.vosviewer.com/documentation/Manual_VOSviewer_1.6.20.pdf
- Wei, K.-K., Teo, H.-H., Chan, H. C., & Tan, B. C. Y. (2011).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social cognitive model of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 170-187. <https://doi.org/10.1287/isre.1090.027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ct No. 6795.

Baek, Song yi, Park, Kiwoong, Ko, Saron, & Kye, Bokyung (2020).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of digital inclusion using text mining.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 33(4), 277-306. <https://doi.org/10.24299/kier.2020.33.4.277>
- Cha, Mikyeong & Song, Kyoeng Jin (2010). A study on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ystem to bridge the regional gap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49-1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1.149>
- Chang, Duk Hyun & Koo, Bon Jin (2022). Factors in spatial clustering and regional disparity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377-397.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377>
- Cho, Yong-Wan (2006a). Information service for overcoming information poverty of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325-356.
- Cho, Yong-Wan (2006b).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s of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121-149.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3023.
-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ct No. 20672.
- Im, Su-Jeong (2025). A bibliometric study on research trends in defense research institutes: journal publications from 2020 to 2024.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6(7), 506-512. <https://doi.org/10.5762/KAIS.2025.26.7.506>
- Kang, In-Seo & Kim, Hea-Jin (2020). Analysis of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2), 333-352. <https://doi.org/10.3743/KOSIM.2020.37.2.333>
- Ko, Jeonghyeon, Kang, Woojin, & Lee, Jongwook (2021). Research trend analysis of digital divide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179-203.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179>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gital divide*. Available: <https://www.kla.kr/dictionary?menuIds=5,2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vailable: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 Lee, Seongsin, Kang, Bora, & Lee, Sena (2019).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vide research trends: comparative analysis of LIS fields and other social science fiel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139-16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139>
- Library Act. Act No. 18547.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19).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19-2023)*.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 Noh, Young-Hee & Jang, Ro-Sa (201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poo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63-82. <https://doi.org/10.4275/KSLIS.2019.53.3.063>
- Oh, Sun-Kyung (2022). A study on the status and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y i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215-239.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215>
- Seo, Hyungjun & Myung, Seunghwan (2016). Research trends and issues on digital divide: focusing on Korean journal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9(4), 151-187. <https://doi.org/10.22896/karis.2016.19.4.006>
- Seoul Metropolitan Library (n.d.). Improvement of library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Available: <https://lib.seoul.go.kr/rwww/html/ko/vulnerableSpt.jsp>
- Song, Hyunkyung (2025). A keyword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igital citizenship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4), 291-3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291>
- Yoon, Hee-Yoon (2022a). *Public Library-Axiom & Sound Argument- 2nd ed.* Daegu: Taeilsa.
- Yoon, Hee-Yoon (2022b).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5-2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05>
- Yun, Jung Im & Choi, Sanghee (2024). ChatGPT-based book recommendation system for learning Korean in a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145-16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145>